

SRT호남선, 열차 지연 역대 '최다' 오명

평균 2분대 넘어...승객 10명 중 3명 보상도 못받아

조오섭 "고객 신뢰의 문제...개선 방안 마련 서둘러야"

SRT열차가 잦은 도착지연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승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서-광주승정-목포간 호남선의 열차 지연 횟수가 SR출발 초기 보다 급증하면서 열차지연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예결위)이 주석회

사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도착 지연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 기준 127건 등 총 506건에 달한다.

이 중 호남선의 경우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같은 기간 56건에서 83건으로 1.4배 증가한 경부선에 비

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종착역 기준 전체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57초, 2018년 1분41초, 2019년 1분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넘고 있다.

주요 열차지연 사유는 ▲선로안정화 시행 ▲열차경합 ▲자연재해 ▲여객지연승차 ▲열차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SR '여객운송약관'과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열차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배상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승차권 구매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기준은 20~40분

미만(12.5%), 40분~1시간(25%), 1시간 이상(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SR이 최근 5년간 총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천403명으로 지연배상금은 23억4천101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천656만원(65.2%), 미지급액은 8억1천445만원(3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SR은 차별화된 철도 서비스를 표방하며 출범해 15대 전략과제로 '고객 시간까지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열차도착 지연건수는 증가하고 지연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차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김지사 "보성 녹차산업 재도약 견인할 것"

도민과의 대화

보성읍 전선 지중화 지원도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보성 녹차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보성군이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융복합사업센터 구축, 기능성 소재·식품 개발, 유통·마케팅 플랫폼 구축, 생산조직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보성은 광주권과 서남권을 잇는 교통 연결점인 만큼 경전선·남해안철도가 완성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보성-겸백, 벌교-낙안, 조성-대서 지방도 확포장 등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해 교통편의·접근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보성군은 보성읍 지중화 사업과 겸백면 상습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보성읍 지중화를 위한 예산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겸백 침수지역 재해 복구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서금열 전 보성군낙지통발협회장은 '낙지 금어기간 조정'을, 양덕만 해군골드키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과수 기상재해 극복 지원 확대·보험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어기간 조정



김영록 지사가 지난 8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손을 흔들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시·군, 어업인·어업인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 전남도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과원시설 개보수의 경우 올해보다 국비를 2배 이상 건의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제도 개선 역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동호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의 '2022 보성세계차EXPO 개최 지원', 윤용목 보성농민회장의 '복내 농기계임

대사업소 농기계 선회 공간 확보' 건의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차EXPO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며 "보성군과 협의해 농기계 선회 공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1면 '한글날 연휴'서 계속

이날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확진자 5명 중 4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광산구 소재 건설현장, 타 시·도 확진자 접촉 관련이다.

또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은 시민 1명도 이날 감염이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서울 수도권 및 타지역 접

촉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도내 확진자 중 7명이 타지역 관련 확진자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까지 포함하면 타지역 접촉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유증상·선제 검사에서도 감염 사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유증상 검사를 통해 6명, 건설현장 등 선제검사서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전남도민 184만명 중 148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맞아 80.5%의 접종률을 기록 중이다.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도 66%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지역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듯 보이지만 이번 주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다"며 "당분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전 시의회 사무처장

신임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정민곤(사 진)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이 최근 임명됐다.



인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신임 정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는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교통건설국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3년 임기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종형기자

정 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 의회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차기 사장으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꾸려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

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전국 최대

내년 17개 시·군 6천387개소 추진

전남도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 17개 시·군 6천387개소가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대인 국비 28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등이 뒤섞인 특정 지역 또는 동일한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등이 뒤섞인 특정 지역 또는 동일한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비 중 86%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14%만 부담하면 돼 신재

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2022년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 17개 시·도 135개 시·군의 사업을 접수해 공개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총 117개 시·군을 선정했다.

전남에선 19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목포, 여수, 나주 등 17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287억원을 포함 총 5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상가 등 총 6천387개소에 태양광 2만4천246kW, 태양열 9천393㎡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한국섬진흥원' 목포 삼학도에 공식 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8일 목포 삼학도에 공식 개원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전남도와 목포시의 세계 최초 섬의 날 제정 제안,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섬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지난 4월 삼학도로 유치 확정됐다.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3천300여개 섬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 수립·진흥 업무를 한다. 부처 별로 분산된 섬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업·연계함으로써 정책·사업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로 열렸으며 섬 주민의 축하 인사를 담은 영상 상영,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노벨 경제학상 美 카드·앵그리스트·임벤스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D. 앵그리스트, 귀도 W. 임벤스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1일 (현지시간) 수상자들이 노동 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자 연실업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카드의 노동 경제학

에 대한 경험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앵그리스트와 임벤스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로 올해의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시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친종형(520220-*****)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노단90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공 고 안: 정용욱, 천보경

○한정승인수리일: 2021년 9월 28일

○공고기간: 2021년 10월 12일 ~ 2021년 12월 12일

○연 락 처: 나주시 월정길 40-56 (빛가람동) (010-4627-799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인 낮은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시오른 상담▶

필자적 편의 법철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구인광고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 나이 제한 없음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062) 522-2000